

리서치센터장 김장열
jay.kim1007@gmail.com
02-3779-3531

런닝맨 Briefing



한컴MDS
(086960, KQ)

MDS 없으면 산업 개발 솔루션 Stop!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시가총액 | 1,558억 현재주가 | 17,650원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
✓ 개발현장의 솔루션 (디버깅, 테스트 등)은 MDS가 맡습니다

- 임베디드 개발 솔루션,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주력 업체이다. 솔루션별 매출은 개발 Tool 26.5%, S/W 솔루션 24.3%, 기타 (플랫폼, 교육) 49.2%. 산업별로는 (17년 별도기준) 산업용 17.0%, 모바일 3.4%, 자동차 38.9%, 정보가전 14.2%, 국방항공 8.9%, 기타 17.6% (IoT 통신모듈/플랫폼, AI 물류 로봇,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, V2X 솔루션 등). 현대차 그룹, 삼성전자, LG전자 등 2000여개 고객사가 매출의 70% (17년 별도) 차지하고 있다. 산업군으로는 자동차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 (비중 더 확대). 기본 개념은,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설계한 후 S/W를 내장하여 최적화시킨 시스템이 임베디드 시스템이고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다. MDS 없이는 연구소 등 산업 현장의 개발 솔루션은 올 스톱이다. 그만큼 4차산업의 기반, 뼈대 역할을 한다.

✓ 18년 다시 성장세로, 3가지 기대

- 17년 마이크로소프트 임베디드 OS (MS 가격정책변화로 16년 앞당겨진 매출로 인해) 재고소진 영향으로 매출 정체 및 이익 감소가 있었다. 그러나 18년에는 재차 의미 있는 성장세로 재 돌입할 전망이다. 18년 매출 yoy 20~25%. 영업이익 yoy 25~30% 성장가능해 보인다. 자회사 중 IoT/LTE 통신 모듈 개발업체인 '텔라단', 지능형 로봇 전문업체인 '코어벨', 그리고 엔비디아 오토모티브 솔루션향 자율주행 솔루션 (V2X)을 특히 주목한다. 텔라단은 17년 100억 수준 매출이 18년 ~300억까지 OPM~15%까지 기대된다. 일본향 수출과 SKT향 쿠키즈 미니라는 어린이용 단말기 매출 기여가 예상된다. 코어벨은 (17년 11월 40억 인수, 지분 58%)은 산업용 자율 이송 로봇이 주력이다. 17년 대비 2배 성장하는 매출 30~40억 예상되고 삼성 SDI 중국공장 포함 해외공장에 최근 10여대 공급한 상태이다. 한컴MDS의 성장전략은 말 그대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개념이고 그 동안 펼치고 뿌린 씨앗이 서서히 거두어 드릴 시기에 진입하는 느낌이다. 주가는 대략 18년 PER 15배 수준. 낮은 박스권 거래로 소외된 상태를 벗어날 돌파구를 찾을 날을 기대한다.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김장열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| 구분 | 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 | 투자등급 | 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 | 투자의견 비율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Sector (업종) | 시가총액 대비 | Overweight(비중확대) | | | |
| | 업종 비중 기준 | Neutral (중립) | | | |
| | 투자등급 3 단계 | Underweight (비중축소) | | | |
| Company (기업) | 투자등급 4 단계 | Buy (매수) | +15% 이상 | 53.3% |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 |
| | | Hold (보유) | -15% ~ +15% | 8.8% | |
| | | Sell (매도) | -15% 이하 기대 | 0% | |
| | | Not Rated(투자의견없음) | 등급보류 | 37.9% | |
| | | 합계 | | 100.0% | |

